

Case 1: 상하악 공히 유리단 결손이며 교합고경이 낮아진 증례

결 론

보철되어야 할 결손부의 후방에 지대치로 이용되어야 할 잔존치가 없는 증례는 결손부에 배열되는 인공치에 가해지는 힘에 의하여 전방부의 지대치에 회전력이 발생한다는 피할수 없는 사실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가지며 치과 임상에 있어서 특별한 유형으로 취급되어져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. 예를 들면 국소의치 분류의 한 유형인 Kennedy classification의 Class 1 및 Class 2와 같은 취급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.

유리단 결손의 보철처치로서는, 그 결손의 구체적인 조건에 의하여 연장 가교의치(Cantilever bridge) 또는 유리단 상(Free end base, Free end saddle, Extended base)을 가지는 가철성 국소의치(Removable partial denture)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된다. 이와같은 유리단 의치외에도 각 조건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는 결손부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결손부위에 Implant를 이용하여 지대치로 이용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.

그러나 이와같은 구치부 유리단 증례를 논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우선 잔존하는 지대치의 보

존에 관한 과제를 말할 수 있다. 유리단의치의 특징에서 봤을 때 지대치에 과중한 부담이 가해지기 쉽다는 점과 지대치의 치주질환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하겠다. 치주질환의 주원인으로서는 미생물학적인 원인을 생각할 수 있으며, 힘의 조건은 촉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때 임상적으로 구체적인 설계상 여러가지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고 하겠다. 특히 지대치의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의치상에 의한 점막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, 또 지대치의 사용되는 지대장치설정에 있어서의 Minus 요인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를 우선 고려하면서 구강을 한 단위로 하는 국소의치의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증례를 끝맺으려 한다.

⊕ ⊕ ⊕

“다름니다”

東明 Gold Casting Alloy · 東明 Amalgam Alloy · 東明 Porcelain Alloy

東 明 合 金

275-4414, 1243 · 277-2075

서울시 중구 수표동 27-1 (세한B/D 708호)